

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Sep. 20, 2026

(통권 1124호)



오늘의 말씀

“그 마음이 삶이 될때”

[요 15:4~5]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서론 ~ 예수님의 마음 시리즈,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나의 삶이 될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주 동안 산 위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다른 길을 걸어도 행복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를 마치면서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실제로 나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을까?” 만일 지난 여덟 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결론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겸손하십시오. 더 많이 애통하십시오. 더 온유하십시오. 더 긍휼히 여기십시오. 더 깨끗해지십시오. 더 열심히 화평을 만드십시오” 라면 팔 복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여덟 가지 새로운 숙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마지막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은 우리에게 여덟 가지 숙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날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요 15:4).” 예수님은 먼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μένω(거함) → καρπός(열매), 이 순서를 뒤집으면 신앙이 부담이 되지만, 이 순서를 바로 세우면 복음이 됩니다.

본문 강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안에 거하라[μένω]”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μένω(메노)] 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머물다, 계속 있다, 거하다, 떠나지 않고 남아 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μείνατε ἐν

ἐμοί].” 여기 [μείνατε(메이나테)]는 [μένω(메노)]의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잠깐 자신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울 때만 찾아오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너의 삶의 거처로 삼아라” 라는 초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 그러면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은 열매에서 시작하지 않고 관계에서 시작하십니다. 행동보다 생명이고, 결과보다 연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더 많이 해내는 삶이기 전에, 예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지는 땅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리지도 않습니다. 뿌리와 포도나무를 통해 공급되는 생명을 받아 살아갑니다. 그런 가지가 아침마다 이런 결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포도를 만들어내고 말겠다!” 가지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림이 아닙니다. 가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생명이 포도나무를 통하여 가지 안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너무 애씁니다. “더 온유해야 하는데…” “더 사랑해야 하는데…” “더 용서해야 하는데…” “더 믿음이 좋아야

하는데…” 그러다가 자신에게서 원하는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열매를 바라보며 자신을 몰아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바라보아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의 생명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성과표가 아닙니다. 열매는 노력의 결과이기 전에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포도가 달려 있기 때문에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가 맺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흉내”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이제 지난 8주를 다시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아버지의 의를 갈망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눠지 않은 깨끗한 마음, 화평을 만드는 마음,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신실함 때문에 고난까지 받아들이셨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것을 열심히 흉내 내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갈 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바울은 “성령의 업적”, 또는 “성령의 숙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καρπός(karpos)]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로 그 “열매”입니다.

물론 팔 복과 성령의 열매가 똑같은 목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놀랍도록 같습니다. 팔 복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지 보여주고,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수록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쉽게 화를 냈는데 조금 더 온유해집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부터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데 이제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세상이 가진 것이 부러웠는데 점점 예수님이 더 귀해집니다. 완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hristian character는 단순한 self-improvement project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것(Christ's life bearing fruit in us)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밖에서 흉내 내는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피어나는 생명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결국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5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순히, “내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호적인 거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붙잡아야 해.”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도, 내가 약할 때에도, 내가 내 모습에 실망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 1:26~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국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조금 더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거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십니다.

[요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내 교훈 안에 거하라”, “내 명령을 잊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평생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사랑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삶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닮아갑니다. 예수님을 오래 바라보면 그의 마음이 좋아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좋아지면 그 마음으로 살고 싶어 지며,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언뜻 들으면 이 말씀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의미 처럼요. 그러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림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없이 살 수 없는 것은 가지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가 창조된 방식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충만해지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무능하다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네 안에서 힘을 찾아라.” “너 자신을 증명하라.” “더 강해져라.” “더 많이 이루어라.”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강해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큼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고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가에 있습니다.

맺는 말 ~ 이제 은혜가 삶에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홉 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빈손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애통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긍휼이 되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화평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침내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분이 되는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변화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흘러오고, 그 생명이 마침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도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삶에서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열매가 아니라, 은혜가 피워낸 열매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바로 그 삶을 더 깊이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면,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지친 영혼에는 쉼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에 붙잡힌 마음에는 자유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관계에는 용서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해진 삶에는
다시 단순함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날아가는 순간에도 속사람에는 새로운 소망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피워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시리즈
후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 시리즈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은혜로
피어나는 삶」입니다.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주님,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게 하소서.

주님, 제 힘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 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제 안에서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